광주시립합창단(왼쪽 위)이 북구합창단(12일), 동구합창단(16일·오른쪽 위), 광산구립합창단(30일·오른쪽 아래)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합창, 아름다운 화합을 노래하다

광주시립합창단 기획공연
부담없는 관람료 '천원의 행복'
4월 12일 북구, 16일 동구합창단
30일 광산구립합창단과 하모니
"수준 높은, 행복한 공연 즐기시길"

여러 사람들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합창'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남다른 의미를 환기한다. 광복절이나 3·1절 기념 공연마다 울려 퍼지는 합창곡들은, 화합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도구'처럼 다가온다.

광주시립합창단(지휘 이준)이 '합창을 화합의 장으로, 합창을 화합의 도구로'라는 제목으로 기획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천원의 행복'이라는 기획 의도처럼 부담 없는 관람료 '천 원'으로 감상할 수 있어 이목을 끈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4월 12일 북구문화센터. 16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 3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북구합창단, 동구합창단, 광산구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이 하모니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전 공연 오후 7시 30분 진행.

먼저 12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은 바리톤 김창식의 '잔향'으로 막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정혜진이 슈트라우스 곡 '봄의 소리 왈츠'를, 소프라노 장미화와 알토 김혜진이 들리브 곡 '꽃의 이중창'을 들려준다. 우정 출연하는 북구합창단(지휘 오준혁)은 '강원도 아리랑', '가을 편지'로 관객들을 만난다. 연합 합창곡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 레퍼토리에 있다.

16일 전일빌딩 공연은 메조 소프라노 박순영이 부르는 '꿈길에서'로 시작한다. 이어 테너 정기주는 '너는 왜 울지 않고'를, 테너 유정석과 손승범 바리톤 등은 '오 솔레미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잠들지 말라'로 관객들을 만난다.

박병국이 지휘하는 동구합창단은 우효원 곡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범준의 '여름편지' 등으로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한다. M.Hayes의 'Swingin' with the Saints'도 이목을 끄는 곡이다.

그룹 더 리얼의 멤버 앤더스 에덴로스가 작곡한 'I Sing You Sing'은 아카펠라로 자주 불리던 노래다. 이어 모차르트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하나로 가장 격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제 곧 그날 보리라'는 윌리엄 도슨의 흑인 영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끝으로 30일 광산문예회관에서는 소프라노 정지희가 '참 맑은 물살', 테너 정광진이 '연'을 부른다. 광산구립합창단(지휘 박호진)이 우정 출연해 '가고파' 전편, '그대 있는 곳까지'를 비롯해 '산 할아버지'를 들려준다.

김귀자 편곡 '비행기'는 우성식, 지영남이 부르며 '혼자 남은 밤', '바람의 노래'도 울려 퍼진다. 2019년 tvN에서 상영한 아이유·여진구 주연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 '그대라는 시'도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시립합창단 박승희 홍보담당은 "이번 기획 공연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공연으로 북구, 동구, 광산구 합창단과 함께 순회공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천원의 행복'이라는 기획 의도처럼 관객들이 부담 없는 공연비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고, 아름다운 화음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000원.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니콜라 부리오 '동시대 미술과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특강, 29일 ACC 극장3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를 매개로 동시대 공간을 탐색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인 현안들인 공간의 문제에 탐색한다.

예술감독인 니콜라 부리오는 국제무대에서 해박한 미술 이론, 뛰어난 전시기획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관계의 미학'(1998)을 비롯해 '포스트프로덕션'(2002), '래디컨트'(2009), '포용: 자본세의 미학'(2020) 등 저서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네트워크에 맞물린 상호 인간적인 관계와 예술 실험, 실천 유형들을 탐구해왔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극장3에서 특강을 한다. 오는 29일(오후 2시) 진행하는 강연 주제는 '동시대 미술과 비엔날레'.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이번 특강에서 동시대 미술 경향에서 비엔날레 역할을 고찰하고 9월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의 의미, 방향성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특강은 문화예술 현장이자 동시대 담론 형성의 장인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방향성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서 "특히 인류세라는 전환의 시대 지구상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을 지 집단지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된다. 광주·전남 지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4일부터 구글 설문지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려운 외국어,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

신영희 독일어 모티브 초대전
30일부터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특정 언어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타 지역 언어를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 당연한 일이다. 언어 습득은 생래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돼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언어'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사회 통합적인 관점뿐 아니라 개인 자존감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외국어 특정 발음을 모티브로 말하기 어려움을 구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신영희 기획 초대전이 그것. '어떻게 우 움라우트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드로잉, 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이 출품됐다.

신영희 작가는 독일어 '움라우트'를 정확히 발음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직접 발음을 배우기 위해 독일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의 구강을 본 떴다. 그 본뜬 것을 얼음으로 만들어 입에 넣고 연습을 했다는 후문이다. 소리를 제재로 내기 위한 신체화 과정을, 다시 말해 말과 의식의 과정을 입의 형태나 혀의 위치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를 기획한 정현주 큐레이터(철학박사)는 "평소 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회에서 서툰 말이라든가 표준어가 아닌 말에 대한 폄훼를 하는 무의식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다"며 "삶의 과제로서 외국어를 익히는 일은 공교육에서 학습체계로 외국어를 배우는 일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는 이가 되도록 정확하게 그곳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며 "관객으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이주자로서 끝까지 올라탈 수 없었던 신체적 경계인 언어이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우 움라우트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까' 전시 장면.

전시장에서는 직접 발음을 시연하는 퍼포먼스 영상과 드로잉 작품 '구강 교정기' 등 발음을 배우기 위해 훈련했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신영희 작가는 "이전에도 언어가 사람들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방식, 또는 성격이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두고 관찰했다"며 "이번 작업은 언어와 신체 사이에서 경험하는 불일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감각을, 인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시각화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서양 꽃 같은 하모니 '화양연화'

빛고을국악전수관, 28일 목요국악한마당

가야금과 콘트라베이스, 동서양 현악기가 만나 함께 공진(共振)한다. 세련된 전자건반이 소리를 '메기'면 고즈넉한 장구가 '받는'다.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색다른 크로스오버는 동서양 음악을 구분하던 관습을 허물고 국악 지평을 확장한다.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오는 28일 오후 7시에 목요국악한마당을 선보인다. '빛고을 국악'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가 출연할 예정이다.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

'꽃길', '열두 달이 다 좋아', '난감하네' 등 익숙한 노래들을 들려준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por una cabeza'에 이어 '상사화', '아리랑', '이몽룡아', '아름다운 나라' 등 전통 국악과 재즈를 접목한 곡들이 울려 퍼진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의미가 담긴 '화양연화'는 2020년 임방울국악제 퓨전판소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판소리, 가야금, 생황, 대금을 비롯해 피리, 비올라, 피아노 등을 연주하며 전통국악과 클래식, 재즈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 뮤지션들이 모인 크로스오버 밴드다.

판소리는 이유진, 가야금 연주는 김보람이 맡는다. 대금에 이승호, 키보드·음악감독에 강윤숙, 바이올린 연주에 이수산을 비롯해 윤영훈(드럼), 한수정(베이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전통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풍류음악과 국악기, 서양악기의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는 퓨전 국악 만의 이색적인 감성을 선사할 것"이라며 "싱그러운 봄을 맞아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고이네르바이젠'·'아지랑이좌'·'유메지' … 다이쇼 로망 3부작

28일~4월 10일 광주극장

'장르의 혁신가', 'B급 무비의 거장', '영화계의 기인(奇人)' 등의 수식어를 받으며 '파괴의 미학'을 보여주는 스즈키 세이준의 다이쇼 로망 3부작 특별 상영회.

광주극장이 '다이쇼 로망 3부작'을 오는 28일~4월 10일 광주극장에서 선보인다. '지고이네르바이젠'을 비롯해 '아지랑이좌', '유메지' 등 그를 일본 대표 비주얼리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1980년 작 미스터리 드라마 '지고이네르바이젠'은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강렬한 색채가 이목을 끄는 세이준 미학의 대표작이자 다이쇼 로망 삼부작의 첫 작품이다. 작중 군사학교 교수인 아오치는 한때 동료였으나 방랑하는 친구 나카사고를 쫓는다. 그 과정에서 자유롭지만 이기심을 갖고 있는 나카사고의 삶을 동경하고, 한편으로 역겨워하며 '기이한' 체험을 한다. 아오치와 그의 아내, 나카사고와 아내 소노, 소노와 똑 닮은 게이샤(오이네) 등 다섯 남녀를 둘러싼 치정과 환상을 그려 낸다.

이듬해 개봉한 로맨스 '아지랑이좌'도 볼 수 있다. 다시요 시대 대표 작가 이즈미 교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일본의 전통 연극에 춤, 연기, 노래 등을 가미한 '가부키 영화'라는 세이준 미학의 결정판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는 1926년 다이쇼 말년을 배경으로 극작가 마츠자키 순코가 사랑, 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몽환적인 꿈의 세계를 방황하는 내용이다. 하나비(불꽃놀이)처럼 흩어지는 꽃, 꿈결 같은 강물을 떠가는 배, 병풍 속 기괴한 풍속화 등 다양한 '이미지'가 한 폭의 회화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끝으로 스릴러 드라마 '유메지'(1991)는 다이쇼 시대 화가 '다케히사 유메지'를 모티브로 삼았으나, 그의 전기를 다루기보다 예술가의 격정적 삶을 허구적으로 그려낸다. 붉은 단풍과 가나자와 등을 배경으로 한 환상담(幻想談)을 담았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세이준은 1960~80년대 일본에서도 혁신적 스타일, 내러티브로 평단과 시네필, 대중에게 모두 지지를 받았던 감독이다"며 "최근 일본 작가주의·대중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작품을 이번 기회에 만나보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아지랑이좌'

상영시간표 추후 광주극장 공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